

'90년 10월 1일까지 美 국방부는 1991년 예산에 대한 최종승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 재정적자 감소의 결과로 차기 5년동안 줄어들 지출의 승인조차 하지 않았다.

1990년초 美 국방부는 대부분 방산장비 구매계획을 변경시켰다. 국방부는 이들 장비의 구매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기도 하고, 혹은 취소하거나 없어진 것을 회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축소 혹은 취소한 것을 예산범주내에 적용시켰다.

V-22나 노드롭사의 B-2 스텔스 폭격기, 휴즈 항공사의 개량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AMRAAM)과 같은 계획들이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다시 빠지고, 또 책정되었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이다.

美 의회는 금년 중반에 여러 계획들을 한데 모아 보장하여, 하나 혹은 다른 계획으로 만들어 버렸다. 회계년도 투표통과 최종일 30일전인 9월말까지 의회는 마치 미국과 세계안보에 대하여 신뢰를 제공할수 있는 충분한 구매 계획에 합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V-22기는 가까스로 1991년에 예산을 배정받았고, B-2기는 생산을 계속할 것이지만, 초도 주문은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AMRAAM은 1991년에 완전 생산을 볼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계획이 앞당겨졌다.

사실상 부분적으로 집중되지는 않았지만 10월초 의회의 힘은 더욱 확대되어 합리적인 지출감소를 동의할 많은 의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다. 분명한 것은 방산장비 획득예산을 배정받는데 있어 의회, 미 대통령, 국방부 그리고 각군과 미국내 방산업체들의 단결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국방부, 유권자 그리고 로비스트들은 정치적인 타협과 함께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얻으려는 노력을 가열시켰다. 이로 인하여 구매계획이 혼란스러워졌고 모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의회, 백악관, 국방부 혹은 방산업체는 서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다.

금년도 예산결정과정을 주도한 것은 변동이다. 이는 국방부 획득담당관들과 의원들이 구매를 줄이고 적자감소 소요를 충족시킬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그리고 노출된 위협요소와 관련시켜 볼때 V-22기, B-2기 그리고 AMRAAM이 아주 적절한 장비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들 장비는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다.

V-22기는 강습시나 냉전시대이후를 괴롭힐 저밀집분쟁(LIC)에서 요구되는 작전에는 병력과 군수품에 대한 신속한 OTH(Over The Horizon) 중형 수송기 역할을 제공한다. 또한 B-2기는 장거리/은밀통과 폭격과 Stand-Off 유도탄의 능력을 제공하고, 중간착륙과 노출되고 과도한 지상 혹은 공중급유가 필요없다.

AMRAAM은 정확한 시계외(視界外, BVR)공격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투기에 대한 방위 능력을 제공한다. 더구나 피상적인 분석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미래의 위협과 현재의 계획된 비용은(정확한 비용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이들 장비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최근의 걸프(Gulf)만사태로 인하여 지역불안정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과 미국의 신속배치군이 전쟁역지력이라는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V-22기와 같은 장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존의 헬기와 비교하여 이 다목적 기종은 임무당 소요인원을 기존보다 적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원병력을 절감할수 있다. 간단하고 빠른 전환을 하는 V-22기는 정찰, 환자 수송, 대잠수함전, 고도(高度)에서의 병력투하와 여러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B-2 폭격기는 미래의 공중전(空中戰)을 주도할 강력한 전자전 환경속에서 적의 레이더 장비를 피할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또한 이 항공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치적 융통성을 제공한다.



최근의 걸프(Gulf)灣 사태 등으로 볼때 미국의 신속 배치군이 전쟁역지력이라는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V-22기와 같은 장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존의 헬기와 비교하여 이 다목적 기종은 임무당 소요인원을 기존보다 적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원병력을 절감할수 있다. 간단하고 빠른 전환을 하는 V-22기는 정찰, 환자 수송, 대잠수함전, 고도(高度)에서의 병력투하와 여러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주둔국은 공군기지와 항공모함의 철수를 미국에게 요구하지만, B-2기는 미군병력에 대한 위협이 적은 채로 공군기지의 유지와 항모배치에 대한 값싼 대치수단으로 이용할수 있고, 다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 공군기지와 항공모함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주고 있다.

이것은 초강대국들이 부정 못하는 정치적 융통성이다. 확실히 민주주의에서 의원들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해외주둔보다 국내주둔을 더 선호할때 이런 가능성을 공개해야 한다. 이 선택은 해외주둔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기술발전으로 더욱 좁아진 세계에서 인정될수 있는 것이다.

AMRAAM에 관하여 언급하면 이 무기는 2백 15억원(3천만불)에 달하는 항공기보다 많은 타격을 가할수 있고, 임무수행후 안전한 귀환시 필요한 안내를 제공한다.

물론 장차 예상되는 적의 항공능력은 이런 장비들에 대비하여 여러가지의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미·소 그리고 다른 군사국이 차기 5년동안 감축을 할 때이다. 감축된 군사력이라는 개념은 자동적으로 최신 전투장비에 더욱 크게 의존을 하게 된다.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중국과 기타 여러나라들은 지대공 유도탄 레이다와 함께 현재 미국의 헬기와 전투기 및 非스텔스 폭격기를 격

추시키고 탐지할수 있는 항공기 센서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더이상 미국의 철천지 원수가 아닌 소련은 미그 29기와 개량형 SU-27 전투기를, 사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련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것이라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최신 항공기에 대항하는 이유도 있다.

방산장비의 가격 상승에 따라 군사장비 획득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잠재적인 적들이 장차 보유할수 있는 장비나 향후 개발능력에 대해 재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모든 것을 학자들이 이론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위협에 대비하여 공동의 방위장비 목표를 위해 필요한 단결의 실질적인 창조는 통찰력, 즉 피상적인 해결이상의 그 무엇을 가져야 한다.

백악관이 뚜렷한 정책결정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의회나 국방부, 그리고 각군과 방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백악관과 대통령의 국가 안전 고문(顧問)들은 목표의 재정립과 실행가능한 日程(timeline)을 설정해야 한다. (旭)

<Miltech 90/11>